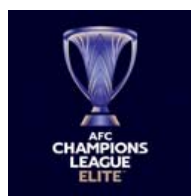


“고베는 강했다”...광주 연승 ‘일단 멈춤’

ACLE 4차전 0대2 완패

강한 압박에 고전 ‘슈팅 수’도 밀려 3연승 뒤 첫 패...고베에 선두 내줘



장단 첫 클럽대항전에 출전한 광주FC가 강호 비셀 고베에게 패하며 연승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는 지난 5일 일본 고베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4차전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저 ACLE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앞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 가와사키 프론타레, 조호르 다를 타격을 연파하며 3연승을 달린 광주는 이날 패배로 고베에게 동아시아그룹 선두를 내주며 2위로 내려앉았다.

광주는 국가대표 골키퍼 김경민이 골문을 지켰고 안영규와 변준수를 센터백으로 배치했다. 좌우 풀백에는 김진호와 조성권, 중앙 미드필더에는 정호연과 박태준을 기용했다. 공격에는 신창무와 아사니를 좌우 날개로, 최경록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놓으며, 베카와 투톱을 가동했다.

광주는 J리그 최강 비셀 고베를 맞아 베카와 아사니를 앞세운 공격 전술로 맞붙었다.

광주는 빌드업 과정에서 비셀 고베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불을 자주 빼앗겼고 특유의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지 못하며 수세에 몰렸다.

골키퍼 김경민의 선방으로 고베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던 광주는 전반 종료직전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47분 박태준이 상대 크로스를 막는 과정에서 박스 안 핸드볼 반칙을 범했고, 곧바로 페널



지난 5일 일본 고베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ACLE 4차전 비셀 고베와의 경기에서 광주FC 아사니가 거침없는 드리블 질주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티키키 선인돼 선제 실점했다. 광주는 후반 신창무와 안영규 대신 허웅과 안영규를 투입하며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흐름을 탄 고베의 공격에 날카로운 공격은 이어졌고 김경민의 슈퍼세이브로 위기를 모면했다. 흔들리던 후반 9분 추가골을 내줬다. 오른쪽 측면이 완전히 틀리면서 컷백을 허용했고 김경민이 처낸 공이 고베의 사사키에게 연결되며 헤더 득점을 허용했다. 0대2로 뒤진 광주는 후반 22분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허웅이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

냈다. 이어지는 프리킥 이후 코너킥 상황에서 아사니가 수비수 두 명을 제치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벽에 맞고 뱅겨 나왔다. 후반 32분에는 허웅이 프리킥을 얻었지만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광주는 이날 슈팅 수에서 2-19, 유효슈팅 수는 1-0으로 크게 밀리며 사실상 완패했다. 광주FC는 이날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상하이 선화를 상대로 5차전을 치르며 내달 3일 중국 상하이 푸둥 스타디움에서 상하이 상강과의 원정 6차전을 마지막으로 올해 ACLE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희중 기자

기계체조 ‘차세대 스타’ 문건영 국가대표선발전 개인종합 1위

광주체육 송채연, 여자부 10위로 태극마크

남녀 기계체조 차세대 간판 문건영(광주체육)과 전국체육대회 5관왕 신술이(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내년 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개인종합 1위를 차지했다.

문건영은 2025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선발전을 겸해 지난 2일까지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24 전국 종합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종합에서 80,266점으로 1위에 올랐다.

79,966점을 얻은 김재호(한국체대)가 2위, 2024 파리 올림픽 안마 7위 허웅(79,800점·제천시청)이 3위에 올랐다.

문건영은 마루운동,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으로 이뤄진 남자 기계체조 6개 전 종목틀을 고루 잘한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사상 최초로 남자 고등부 7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개인종합, 철봉, 평행봉에서 3관왕을 차지하고, 도마와 안마에서는 은메달을, 마루운동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여자부에서는 신술이가 도마, 이단, 평행봉, 평준대, 마루운동 4개 종목을 모두 겨루는 개인종합에서 51,250점을



지난해 12월 열린 '2023 기계체조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4년 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개인종합 3위를 차지하며 생애 첫 태극마크를 획득한 문건영. <광주체육 제공>

획득해 우승했다. 임수민(경기체고)은 49,700점으로 2위, 오소선(인천체고)은 48,500점으로 3위에 올랐다. 광주체육 송채연은 여자부 10위로 태극마크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광주교통공사 황수련(가운데)이 지난 4일 열린 2024 회장기전국유도대회 겸 2025년 국가대표 1차선발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뒤 팀 동료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제공>

광주교통공사 황수련 ‘태극마크’

유도 국가대표 1차선발전 여자부-52kg급 은메달

광주교통공사 황수련이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황수련은 지난 4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4 회장기전국유도대회 겸 2025년 국가대표 1차선발전 여자부 -52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 태극마크를 달았다.

황수련은 32강전에서 김서현(용인대)을 업어치기되치지 절반승, 16강전에서 장예진(포항시청)을 언더리걸기 절반승, 8강전에서 이본(용인대)을 업어치기되치지 한판승으로 꺾고 준결승전에 안착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오연주(성동구청)를 상대로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황수련은 결승전에서 장세운(한국체대)을 상대로 연장 8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모로턴 지기 절반패를 당했다.

이로써 황수련은 상위 성적 2명을 국가대표로 뽑는 이번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황수련은 이날 말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내년 3월 순천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대비 훈련에 돌입한다. /박희중 기자

전남스포츠클럽, 전국무대에서 ‘빛 받하다’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 9개 클럽 참가 금5·은7·동5 ‘금1·은3·동1’ 구레노고단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선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클럽을 보유한 전남이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전남도체육회는 6일 “지난 1-3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2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에서 전남 소속 9개 스포츠클럽이 참가해 금메달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은 전국의 지정스포츠클럽 8개 클럽, 10종목 약 3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전남에는 현재 12개의 지정스포츠클럽이 있다. 이번 대회에는 영암, 구례, 곡성, 순천, 나주, 여수, 진도, 해남, 영광스포츠클럽이 참가했다.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전남의 클럽은 구레노고단스포츠클럽이다.

구레노고단클럽은 배드민턴 종목에 출전해 일반부 상급(여복) 김보마-이주희 조가 우승을 차지했고, 일반부 초급(남복), 초심(남복), 초등부 초심(남복)부가 준우승, 일반부 상급 혼합복식 조가 3위에 오르며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 메달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곡성스포츠클럽과 순천스포츠클럽은 배드민턴 일반부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만나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갔다.

나주스포츠클럽도 수영 남중부 점영 100m에서 이진현(매성중 2)과 여중부 배영 50m에서 김윤지(매성중 1)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윤지는 배영 10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여초부 배영 50m에서 김예서(빛가람초 4)와 남초부 평영 50m에서 이재



제2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배드민턴 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구레노고단스포츠클럽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현(빛누리초)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영암세한스포츠클럽 야구팀은 유소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여수테니스스포츠클럽은 테니스 성인부 공동 3위,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은 탁구 남중부 개인전 3위에 각각 올랐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출발 11

년째를 맞은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우수 선수 발굴·육성을 통한 엘리트 체육과의 순환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며 “앞으로 클럽들이 보다 더 자생력을 갖추고 도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장유빈 <KPGA 제공>

‘대세’ 장유빈, 15년만에 전관왕 도전

투어 챔피언십 오늘 티오프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최대 우량주 장유빈이 개인 타이틀 석권이라는 위업에 도전장을 냈다.

장유빈은 7일부터 제주도 제주시 사이프리스 골프&리조트 동·남 코스(파71)에서 열리는 KPGA 투어챔피언십(총상금 11억원)에 출전한다. KPGA 투어챔피언십은 시즌 최종전이다.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70명만 출전해 컷 없이 순위를 가리는 왕중왕전이 나다름없다.

개인 타이틀 가운데 이미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는 장유빈으로 확정됐지만, 프로 골퍼 선수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상금왕과 평균타수 1위(턱춘상), 그리고 다승왕의 주인은 이 대회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을 거머쥔 장유빈이 상금왕, 턱춘상, 다승왕 등 모든 개인 타이틀을 석권하는 전관왕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다.

장유빈은 10억4천10만원의 상금을 쌓아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 평균타수도 1위(89.53타)에 올라 있다. 다승 부문에서도 2승으로 김민규와

공동 1위다. 장유빈이 K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상금왕과 다승왕, 턱춘상은 가뿐하게 자신의 차지가 된다. 우승하지 못해도 상위권 성적이면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

지금까지 KPGA 투어에서 대상, 상금왕, 턱춘상, 다승왕을 모조리 차지한 사례는 2009년 배상문 이후 14년 동안 없었다.

장유빈은 5천700만원 차이로 추격 중인 상금랭킹 2위 김민규는 상금왕과 다승왕에서 역전할 수 있기에 온 힘을 다 쏟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최정 ‘4년 110억원’ SSG 잔류

14년 총액 302억원...FA 사상 최초 누적 300억원 돌파

최정(37)이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열리자마자 SSG 랜더스와 ‘다년 계약’을 했다.

SSG는 6일 “최정과 4년 총 110억원(계약금 30억원·연봉 80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전액 보장 계약이다. 이번 계약으로 1987년 2월생인 최정은 만 41살인 2028년까지 그라운드에 설 수 있다.

2005년 SSG 전신 SK 와이번스에 1차 지명돼 프로 생활을 시작한 최정이 ‘일월람판’으로 남을 가능성도 커졌다. 또한 최정은 KBO리그 ‘다년 계약’의

새 역사’도 새로 썼다. 최정은 2015년에 처음 FA 자격을 얻어 4년 88억원에 도장을 찍었고 2019년에는 6년 106억원에 계약했다.

세 번의 FA 계약을 통해 최정은 다년 계약 총액 300억원 시대(302억원)를 열었다.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가 두 번의 FA 계약(2019년 NC 다이노스와 4년 125억원, 2023년 두산과 6년 152억원)을 하며 세운 277억원의 크게 넘어선, 역대 KBO리그 다년 계약 최고 총액이다. /연합뉴스